

# “시장 무공무진하다”

## 유럽 첨단시설 도입 경쟁

그라비아인쇄(오탁판인쇄)방법은 최근 사이 변한 것이 없지만 품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라비아인쇄는 전통적으로 인쇄판의 내쇄력이 좋고 섬세한 인쇄가 가능하다는 그 특성에 따라 대량인쇄물이나 고급인쇄물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독일내 유명한 잡지들, 예를 들면 슈피겔지(Der Spiegel), 포쿠스지(Focus) 그리고 스테른지(Stern)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성경책보다 많은 양인 1억3천만 부정도 인쇄되는 이케아(IKEA)사의 카탈로그들이 그라비아인쇄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탄성있는 재료포장 인쇄의 경우 다른 인쇄방법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경쟁력 있는 인쇄분야는 포장지분야이다. 물론 오프셋과 플렉소인쇄가 시장을 넘보려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그라비아인쇄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유럽 그라비아연합(European Rotogravure Association, ERA)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유럽 그라비아인쇄사들의 경영실태는 60% 이상의 인쇄사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려운 경영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값싼 인쇄단가에 의한 일량의 감소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는 단지 경제의 침체 뿐만 아니라 그라비아인쇄 작업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동안 대형 그라비아인쇄업체들은 자체의 출판업체와 함께 마치 예약된 것처럼 공생해 왔으며 영업 또한 자신이 속한 국가안에 제한되어 왔다. 유럽 통합이란 물결에 유럽의 모든 나라가 거대가 쉬워지면서 중앙유럽과 동유럽국가의 대형 그라비아인쇄사들이 이에 적합한 작업환경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형 그라비아인쇄사들이 합병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슈로트-세발두스(Schlott-Sebaldus)사와 브로셱(Broschek)사가 작년에 슈로트그룹(Schlott-Group)으로 합병됨으로써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그라비아인쇄사로 등극했다. 그라비아업계의 1위 업체인 아르바토(Arvato)사 또한 7위 업체인 스프링거(Springer)사와 업무 제휴를 하고 있으며 이로써 유럽 전체 시장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다.

유럽시장을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북미의 경우, 3개의 대형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유럽은 25개가 넘는 업체가 산재해 있다. 물론 북미와는 다른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긴 하나 유럽의 그라비아인쇄사들의 합병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인쇄사를 비롯 신생 그라비아인쇄사들은 인쇄 폭이 4미터가 넘는 차세대 그라비아인쇄기를 도입하여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렌그렛(Lenglet)사는 3.68미터의 그라비아인쇄기 2대를 설치했

업체명	점유율
Arvato	11.5 %
Quebecor	10.1 %
Schlott-Sebaldus + Brochek	9.3 %
Polestar	7.5 %
Gruner	7.0 %
TSB	6.6 %
Springer	6.5 %
Bauer	5.5 %
Mondadori	5.1 %
Burba	4.9 %
Lite	3.7 %
Roto Smeets	3.5 %

으며, 영국기업인 폴레스타(Polestar)사는 3.88미터의 인쇄기를 설치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토사는 2005년 초에 4.32미터짜리 그라비아인쇄기 2대를 도입 예정인데 이로써 아르바토사는 세계 최초로 4미터가 넘는 초대형 그라비아인쇄기를 보유한 인쇄사가 될 것이다.

이런 그라비아업계의 경쟁적인 투자는 그라비아인쇄가 단지 정통적인 분야에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잡지와 카탈로그 시장에서 윤전기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특히나 채택방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판과정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1년 전만해도 플렉소인쇄기의 발전으로 그라비아인쇄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줄어 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서 아시아를 비롯 남부 유럽 그리고 동유럽의 포장인쇄 분야에서 '르네상스'라 불리울 정도로 그라비아인쇄가 심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그 혁신의 중심에는 중국과 터키가 선전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유럽과 미주시장은 제판의 단가와 높은 임금으로 그라비아인쇄가 플렉소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해도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그라비아인쇄가 포장인쇄분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장통의 경우에도 일정하고 뛰어난 인쇄품질과 색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식료품 포장인쇄분야에서는 타 인쇄방법에 비해 실질적인 품질이 높다는 이유로 그라비아인쇄가 채택되고 있는데, 그 중 테트라 팩(Tetra Pak) 같은 우유 또는 주스 등의 포장박스 인쇄가 플렉소인쇄에서 그라비아인쇄로 전환하고 있다.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는 가격이다. ERA의 조사에 의하면 고품질 인쇄의 경우 플렉소와 그라비아인쇄 사이에서는 거의 가격차가 없다.

### 포장지인쇄 ● ●

그라비아인쇄의 주력산업의 한 분야가 바로 포장지인쇄분야이다. 포장지인쇄에는 다양한 원재료가 이용되는데 종이와 대표적이며 바닥장판 및 벽지도 이에 속한다. 전 세계적 생산량을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 규모는 약 60억평방미터에 달한다.

지난 1995년에서 2001년까지 55%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분야는 바닥장판 분야인데 세계적으로 1995년 5천만평방미터에 이르던 시장이 2001년에는 그 9배나 늘어난 4억평방미터를 생산하고 있다. 종이 포장지의 경우 매년 55만톤 정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그 중 46%정도가 그라비아로 인쇄되고 있다.

### 앞으로의 전망 ● ●

그라비아인쇄의 미래는 상당히 밝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그라비아인쇄시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회사들의 합병이

포장인쇄			
나라	생산량	나라	생산량
독일	2,661톤	이탈리아	888톤
프랑스	599톤	네덜란드	432톤
영국	383톤	스페인	323톤
벨기에	156톤	핀란드	103톤
스위스	94톤	스웨덴	87톤
폴란드	63톤	슬로바니아	59톤
덴마크	23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라비아인쇄 자체의 특징과 현대적인 제판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여 카탈로그와 잡지인쇄분야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장인쇄분야에서는 높은 인쇄품질과 색재현으로 그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라비아시장은 동유럽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러시아도 그 성장에 합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세계시장에 중국과 터키 그리고 20억 인구의 인도와 같은 나라들의 인쇄시장도 그라비아인쇄시장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라비아인쇄시장은 많은 가능성으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라비아인쇄는 상업용 오프셋인쇄가 시장에 소개되고 그 이후 오프셋인쇄기술이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쇄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지만, 종이인쇄 외에 탄력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포장인쇄시장이 열리면서 그 비율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라비아인쇄는 본래 동판조각에서 시작된 예술의 한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아직까지도 상업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는 인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판비용이 고가이며 제판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라비아인쇄시장의 절대성과 포장인쇄시장의 유동성 등은 그라비아인쇄가 가지는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시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그라비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독일 뮌헨에 자리잡고 있는 유럽 그라비아연합의 홈페이지인 [www.era.eu.org](http://www.era.eu.org) 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근성 · 한국하이델베르크 부장)